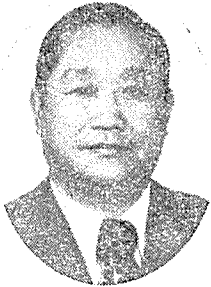


<觀 我 臺>



文化融合과 圖書館

吳 聖 植
國立中央圖書館長

우리는 세계와 呼吸하는 時代에 살고 있다. 한 社會가 이르킨 衝擊은 다른 한 國際社會에 대한 橫波及을 招來하면 그 作用은 또다시 相互交替되는 螺線型的 激動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變動의 速度는 時代가 거듭됨에 따라 加速化되는 이른바 幾何函數의인 倍增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피어스 데렉(Pierce Dereck)이나 카벤디쉬(Kavendish)가 論證한 知識의 指數函數의 效果는 바로 이 事實 즉 加速化原則을 지적한 것이다.

이 現象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科學의革新에 基因되고 있다. 그 하나는 通信手段의 赫赫한 發展이다. 오늘날 한 地域의 變化가 地球上 모든 곳에 즉각적으로 傳達되고 있음은 바로 通信媒體의 發展에 依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交通手段의 發展이다. 온 世界는 이미 一日圈에 屬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短縮되어 超音速圈의 世界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科學의 發展은 結果的으로 國際密度를 高揚하는 原動力이 되고 있다. 주로 經濟的現象에서 露呈되고 있는 國際密度의 相關性은 「오일쇼크」라는 파문에 依하여 여실히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現象은 비단 經濟的 側面에서만 發生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文化的 側面에서도 惹起되고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直觀하여야 한다.

오늘날 文化는 한 地域이나 한 國家만이 享有하는 孤高한 存在가 아니다. 그것은 作用받고 作用을 주는 動的存在인 것이다. 따라서 한 國家의 文化는 다른 地域에 作用하며 그 反對로 他地域의 文化는 우리의 文化에 作用되는 것이다. 그 作用의 速度는 加速化原則에 따라 時代가 거듭될수록 倍加되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藝術이 그러하며 우리가 享有하고 있는 學問이 또한 그러하듯 文化의 國際性은 날로 擴大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文化融合의 現象이 發生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創造의 기틀이 形成되는 것이다.

圖書館도 이러한 時代的 潮流의 例外일수는 없다. 가깝게 본다하더라도 1961年 目錄原則을 爲한 國際會議(ICCP)가 開催된 以後 圖書館學에 對한 國際的 相關性은 해가 거듭됨에 따라 擴大되어 왔다. 最近에는 世界科學情報流通體制(Unisist)를 비롯하여 國際連續刊行物情報制度(ISDS) 및 汎世界書誌統整(UBC) 등 수많은 世界적 重要計劃이 創案되었으며 實踐되어 오고 있다. 이 모든 計劃은 文化의 國際的 流通을 前提로 하고 있으며 人類가 創案한 知識의 共有概念을 基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圖書館이야말로 文化融合의 터전이요 새로운 創造力을 배양하는 요람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둘이켜 보건대 지난 한해는 우리 모든 圖書館人에게 重要한 意味를 안겨주었던 국제도서관협회연맹대회(IFLA Worldwide Seminar)가 개최되었던 뜻깊은 해였다. 그러나 이 大會가 다만 우리의 손으로 국제회의를 主催하였다는 肯志만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아무리 적게 評한다 할지라도 이 大會는 韓國圖書館界의 국제적 踴躍을 위한 努力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크게는 文化融合을 促進시켜 새로운 創造를 指向하려는 우리의 意志로 受容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圖書館界가 指向하여야 할 方向인 것이며 직면하고 있는 課題인 것이다.

이제 丙辰年을 보내며 새로운 한해를 맞는 지금 우리는 속연히 韓國圖書館界의 未來를 熟考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來日은 分明히 現代라는 時代的 特性위에 設定되는 것이며 文化融合이라는 土壤위에 創造되는 것이다. 이 되할 수 없는 肅然한 事實에 우리는 과감히 應戰함으로써 새로운 歷史의 序章을 펼쳐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丙辰年 除日